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중현교회

THE WEEKLY CHŒ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향수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길'

2004년 단기선교 진행상황

▷ **팀 구성 진행 중** -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팀 구성이 지역에서 144개 팀, 대학부에서 16개 팀으로 확정되었다. 각 팀은 이미 선교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지난 수요일(4일)에는 구체적인 선교 지역까지 선정하였다. 그러나 팀 구성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팀원들까지 완벽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팀마다 형편이 달라서 이미 팀원까지 다 확정된 팀이 있는가 하면, 팀원을 보충해야 하는 팀도 있다. 바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각 팀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팀원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또한 이미 확정된 팀 외에도 각 지회에서 자제적인 팀 구성을 원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팀이 순조롭게 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교재 발간 완료** - 단기선교에 필요한 출판물이 발행되었다. 이번에 발행된 출판물은 단기선교 핸드북, CMTC 교재, 선교만나, 각 언어별 전도지 등이다. 단기선교 핸드북에는 팀장과 총무의 업무 내용과 필요한 양식이 수록되어 있으며 팀장 훈련에 사용되는 교안도 수록되어 있다. CMTC 교재는 각 강의의 내용이 성실하게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필요한 자료들이 풍성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읽고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각 언어별 전도 언어가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특별히 팀장들이 선교지에서 경건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중현의 만나와 비슷한 형식의 '선교 만나'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경건회가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도지는 이전보다 더 정확한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 **훈련 진행 중** - 지난 수요일부터 팀장 훈련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특별히 팀장의 영적 리더십과 소그룹 운영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된 이번 팀장 훈련은, 선교지에서 경건회를 인도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팀장들을 훈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CMTC는 1차 교육 때에 635명이 교육을 받았고, 2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약 567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언어훈련은 2월 1일 현재 35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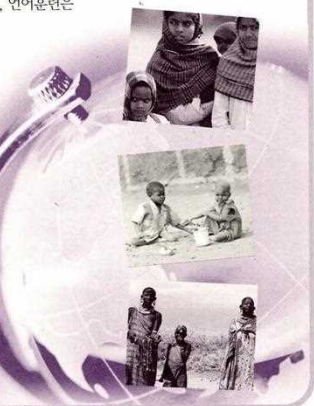
▷ **기도 진행 중** - 이런 성실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다. 사람의 성실한 준비가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한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선교 사역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警戒함이 허사되다'(시 127:1).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매주일 오후 4시에 갈릴리 홀에서 선교기도회를 하고 있다. 중현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2004년도 단기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함께 간구하기를 소원한다.

배우기를 힘쓰는 교역자들

교역자 수련회

2004년도 교역자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12일)과 금요일(13일)에 중현기도원에서 열렸다. '복음의 길을 걸읍시다' (요 14:4-6)라는 기차 아래 회화가 한 마음으로 전전해 나가는 시각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자'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교역자 수련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

지난주 수요일부예배 메시지와
전반기 장학생 명단 공고 6면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달리진 '중현기도의 창'

오래 전부터 주간중현 8면에는 '중현기도의 창'이 있어서, 교회의 5대 목표를 골자로 중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이 실렸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현기도의 창' 내용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일년 내내 같은 기도 제목을 올렸지만, 올해부터는 매월 새로운 기도 제목을 올리기 때문이다. 5대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 제목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별히 각 달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을 두 가지 정도 정하여 싣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쪼록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기도 시간에 '중현기도의 창'을 참고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가정에서부터 준비되어야..."

겨울수련회 및 겨울성경학교

지난달 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겨울수련회 및 겨울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이달 중순부터는 총 13개 교회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수련회 및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특별히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16~17일에, 중등2부와 중등3부는 23~24일에, 영아부, 유아부, 유년부는 25~26일에 각각 집회를 갖는다. 이번 겨울수련회 및 성경학교를 앞두고 특별히 학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해당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며 미리부터 자녀들을 준비시켜 달라는 것이다. 성경학교가 열리는 당일에 가방만 싸서 보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학교를 원례행사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자녀와 함께 겨울성경학교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역할도 감당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함께 손을 잡고 만드는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열리기를 소원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가족을 맞이하며

제1차 학습세례 교육시작

오늘부터 2004년도 제1차 학습세례 교육이 시작된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기로 결심하여 학습에 참여하고, 복음의 진수를 맞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은 당시자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도 기쁜 일이다. 왜냐하면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새 가족이 확정되고 교회의 지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현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에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는 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학습 세례 교육이 형식적인 통과 과정으로 그치지 않고 피교육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라. 22일에 있을 학습 및 세례식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자세한 일정은 8면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오늘 CMTC 일정

1 교시(18:10~19:10)	장소
세계 선교의 흐름과 영적 상황	갈릴리홀
2 교시(19:20~20:20)	장소
1. 정교, 카톨릭	나사렛홀
2. 이슬람교	갈릴리홀
3. 힌두교	본당 112호
4. 불교	베다니홀

Sermon for Next Week

WHO LOVES JESUS MOST?

“(36)Now one of the Pharisees was requesting Him to dine with him. And He entered the Pharisee’s house, and reclined [at the table. (37)And behold, there was a woman in the city who was a sinner; and when she learned that He was reclining [at the table] in the Pharisee’s house, she brought an alabaster vial of perfume, (38)and standing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and kept wiping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and kissing His feet, and anointing them with the perfume....” (Luke 7:36-42)

In today's Bible passage, we find three people, a Pharisee, a woman, and Jesus Christ. Jesus is the focal point. The Pharisee invited Jesus to eat with him at his home. This indicates that the Pharisee probably had a certain amount of care, respect, and love for Jesus. The woman, a known sinner in the city, also came to the Pharisee's home, uninvited, to see Jesus. She kneeled down, cried, wiped the tears that had fallen on Jesus' feet with her hair, and kissed His feet while sprinkling them with perfume. The Pharisee, a respectable man, who publicly invited Jesus to his home because he thought He was a true prophet, started to change his mind about Him when he saw this scene. Although the Pharisee spoke no words, for he analyzed and criticized Jesus internally, Jesus nonetheless answered him outwardly by saying, "Simon, I have something to say to you". Simon responded, "Say it, Teacher". His brisk response and self-righteous attitude point toward a problem, a serious problem that Jesus was about to address.

Jesus told Simon, "A moneylender had two debtors; one owed five hundred denarii, and the other fifty. When they were unable to repay, he graciously forgave them both." Jesus' directed his talk toward debtors. He did not speak about beautiful houses, health, family, success, or respect. He did not talk about how to live the right way, or what to do in order to have a beautiful life. Instead, he talked about debt. He was illustrating a truth concerning all human beings. Every person is a debtor to God. All people on this earth owe the Lord, and not one of them can pay what they owe.

Sadly, some people, like the Pharisee, think they are rich. They believe that their lifetime services within the church as a pastor, elder, deacon, teacher, or member give them some kind of advantage over others. They think that because they have always carefully lived doing good things that this somehow takes care of their debt. Indeed, you never hear them mention that they are a sinner who Jesus died to save. You never hear them say that they cannot in anyway pay this debt. You never hear their confessions because they are self-righteous. I do not care how much good or how many miracles any person on this planet has performed, they can never pay-off their debt to God. From birth, each individual is indebted to God beyond his or her means to repay. If you find yourself rich in this way, you have a serious problem, for there is no amount of self-effort or good will that can satisfy the debt you owe to the Lord God.

Jesus concluded His talk to Simon with a question, "So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This question is so important. You are one of the debtors. Do you love Jesus most? The simple fact is that those who understand how much He has forgiven their sins are the ones who love Him most. Those who love Him most realize how much He has done for them. They appreciate, day by day, how much more they can love Him. When you love the Lord, you understand the price of your sin and the cost of forgiveness, and you love Him more. Do you have this kind of heart? Most people pour out their thankfulness for things like, good jobs, beautiful families, healthy bodies, and nice friends. They pray to God like they love Him because He gave them a husband, wife, or child, or blessed them with some kind of material thing. This is not the way. What is important is how much you need the blood of Jesus Christ to cleanse your sin. There is no possible way for you to wash away the stains of sin, only Jesus Christ has the power to do this. Only His blood can heal you.

A loving heart starts here, with sincere appreciation for God's grace.

The more you grow in His grace, the more you can feel His love. God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e more you understand the serious problem of your sinfulness, the utter destruction it causes, the more you start to love the Lord. When you start loving the Lord, you greatly appreciate how the blood of the Lamb brings you freedom, and you end up loving Him more and more. The Pharisee thought keeping Moses' Law, living his life for the church, working for the church, talking about the Bible and helping sinners, and even figuring out who the sinners were was good enough. However, Jesus knew better. He knew the Pharisee and woman's hearts. He told Simon, there are two debtors, one big and one small. Both cannot pay, but I graciously forgive both. Who loves me more? The answer is the one who has the biggest debt. Simon did not understand.

My dear friend, do you understand? Do you love Jesus? First thing, you have to feel the gravity of your sinfulness. You have to know how terrible your sins are. From there, you start having sincere appreciation to the Lord. If you do not think you have any faults, or if you wonder whether there is sin in your life, you are a hypocrite. Maybe people respect you, but you have no conscience. Real sinners have a conscience. They cry out to the Lord because they can't solve this problem. When they do, He can humble them. Look at Paul, he was able to say, "For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and not fit to be called an apostle, becaus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1 Cor. 15:9). From Saul the Pharisee to Paul the Christian, he does not place himself high, but humbles himself. John reminds us, "If we say that we have no sin, we are deceiving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1 Jn. 1:8).

Many leaders within the Church claim to have no sin. It is a sad, sad situation. Peter's confession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Christ's blood, "knowing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like silver or gold from your futile way of life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1 Pet. 1:18-19). Without the blood of Jesus Christ, you cannot love God. If you say you love God without Jesus, you are liar. Whoever has the blood loves Jesus. They love Him more and more. That is why they listen to His teaching, believe He died on the cross, and believe in the glory of the cross. That is how they become more like Jesus Christ. He is the one who reveals God to man, and in Him is everything we need, "that their hearts may be encouraged, having been knit together in love, and attaining to all the wealth that comes from the full assurance of understanding, resulting in a true knowledge of God's mystery, that is, Christ Himself" (Col. 2:2-3)

I cry out to you, please deny yourself and have absolute obedience to Christ. All treasure is at the cross. There you will find resurrection, death, and eternal life. "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our life, is revealed, then you also will be revealed with Him in glory" (Col. 3:1-4). Amen. Let us conclude with Paul's thoughts about himself at the end of his illustrious life, "It is a trustworthy statement, deserving full acceptance, that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among whom I am foremost of all" (1 Tim. 1:15). Indeed, Paul loved Jesus Christ most. 

다음주일 설교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

⁴³⁶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³⁷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³⁸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눅 7:36~42)



김성관 목사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여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존경하며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는 불청객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널리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아래 무릎을 꿇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참 진지자로 생각하고 집으로 초대해 했던 바리새인은 이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 내가 네게 이 말을 말하노라. 바리새인 시몬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짧고 톡 쏘는 대답을 보십시오. 자기 의에 사로잡힌 태도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썼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썼는데 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탐착하여 주었으니.”(41~42절 참조). 예수님의 말씀은 빛진 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집이나 건장, 가족이나 성품, 또는 명예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사는 방법이나 행복한 삶의 비결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빛진 자에 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 관한 진리를 쉽게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은 빛진 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빛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빛을 지고 있으며, 그 빛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생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회원으로 봉사한 업적을 자랑하며,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훌륭하다고 자부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항상 조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빚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 대신 속죄하여 할 만큼 홍익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빚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선행이나 기적을 행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진 빚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하나님께 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사뭇잘못 자기 자신을 부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애를 써서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 사함과 사랑의 관계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 또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했느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빛진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 건장한 몸, 좋은 친구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기도를 잘 올리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고쳐주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크게 자라날 자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또 그것이 가져오는 멸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여러분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양의 피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음을 깊이 감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평생을 바치고, 다른 이들을 도우며,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여자의 마음을 드러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백 데나리온을 빛진 자와 오십 데나리온을 빛진 자를 예로 드시며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값은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탐착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했느냐?”(42절). 시몬은 “...많이 땅강함을 받은 자시니이다...”(43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몬은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진실로 갖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위선자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는 자는 몰라도, 여러분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겸손해 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변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고전 15:9). 바리새인 사용에서 그리스도인 바울로 변화한 이후,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요일 1:8).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출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을 들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영광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믿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지체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여 있느니라”(골 2:2-3).

그럼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있습니다. 부활과 사랑과 영생은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믿고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위엣 것을 생각하고 망영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였음이니 우리 생명이니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때에 이르러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1-4). 아멘. 바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표현한 말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수사니라”(딤후 1:15). 실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장로 칼럼

장로 칼럼

십자가 정병으로



김구형
(장로,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

토요일과 주일의 제2교육관은 운동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 찹니다. 토요일은 대학부 집회로, 주일에는 아침 고등부 예배로 시작하여 오후 청년1부 집회와 이어지는 5부 예배와 저녁 찬양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또한 주일 저녁예배 다음에는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모임 등으로 제2교육관은 젊은이들로 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고대청(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으로 구성된 제2교육위원회는 교회 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고등부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대학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청년1부는 만 30세 미만의 젊은이들로, 1,500여 명 회원과 150여 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이위원회라고 불리도 손색이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정문 앞의 제2교육관이 완공되면서 교회는 이를 젊은이(고대청 /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들의 활동 공간으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제2교육관 1층은 전체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증집회실로 1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3개의 방으로 되어 있지만 10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분반 공부 및 소집회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3층은 10여개의 소집회실과 큰 홀로 되어 있어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며 3층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분반 공부나 소그룹 모임에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4층은 400여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집회실로 고대청 각 부서의 전체 모임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이 되어 있어 젊은이들에게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교육관의 시설은 어디에 내다도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유용하게 꾸며져 있고 다목적, 다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간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교회 내에서 가장 편리하고 좋은 공간을 싣듯 내어 준 것은 위임 목사의 남다른 젊은이 사랑과 젊은이를 잘 키우겠다는 교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는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무장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키우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1997년 젊은이들이 드리는 5부 예배를 신실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5부 예배는 젊은이들이 예배의 안내와 헌금위원을 담당하고 예배시 고등부찬양대와 젊은이로 구성된 뱃놀이찬양대가 찬양을 담당하므로 더욱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내의 젊은이들은 5부 예배를 당연히 자신들이 참석하는 예배로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진정한 천국일꾼은 바른 예배, 신령한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확신하고 교회는 5부 예배를 시작했고 이제는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호흡하고 서로의 헌신된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부 예배에는 젊은이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힘과 열정이 있습니다. 힘이 넘치는 회중 찬양에서부터 순수한 마음과 공경한 준비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그렇고 특히 말씀에 반응하는 면에 있어서도 다른 주일 예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새로움과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5부 예배이기에 젊은이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5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운다는 목표에 걸맞게 모든 교육부서의 교역자를 전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갈망하여 오던 것을 교회는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는 오교 전부터 전임 교역자가 배치되어 젊은이를 위한 사역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심방과 상담, 전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교회가 그렇듯이 위임목사의 주일 설교를 중심으로 주일 성경공부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공부 시간에 배운 말씀으로 주일 5부 예배 설교를 다시 듣게 됨으로써 예배의 집중은 물론 말씀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우게 되어 교회가 지향하는 <예수, 복음,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하며 이런 것들이 생활 가운데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의 가르침 앞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한국교회에 1980년대부터 불어닥친 제자훈련의 열풍으로 수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교회 안에 불일 뜻이 몰려들지만 우리교회는 오로지 예배를 통한 <예수, 복음, 십자가>만을 강력하게 선포해 온 결과 프로그램과 방법론이 아닌 <나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

을 회개하며 오로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마 4:17-22)로 서 나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키우겠다는 교회의 의지는 장학급 지급에서 더욱 잘 나타납니다. 매년 500여 명에게 지급되는 장학급의 수혜자가 고대청의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장학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부벌 잘 하는 학생에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가는 신앙을 우선으로 보고 주는 장학급입니다. 학업성적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소속된 부서에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일에 열심히 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으로 그동안 시행해 온 결과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며 달려오자 젊은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금요 집회에 고대청이 앞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과 매년 단기선교 현장에 앞 다투어 나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집회에 본당 앞자리의 고대청의 좌석에는 젊은이들로 북미고 있고 매년 고대청은 200명 이상의 단기선교 지원자가 있었고 지난 겨울 방학인 1, 2월에는 대학부에서만 150여 명 이상이 단기선교 현장으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부 집회를 주일에서 토요일로 옮김에 따라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으로 봉사와 있어 각 부서에 한결 새로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매주 발행되는 <주간 총헌>에 발표되는 현실적인 간증과 진실한 고백들을 통하여 이들이 변화하여 주님 앞에서 서 나가는 모습들을 전 교인이 보며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과 고백 속에 나타나는 복음으로 살기 위해 믿음하며, 몸부림치는 저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 교회가 복음의 길을 가는 교회로 더욱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서 젊은이들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거꾸로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으로 단단하게 무장된 우리 교회의 고대청의 젊은이들은 시간 지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공부, 공부하며 말하는 기현상도 생겨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큰 회망 가운데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복음>, 하나님을 알고 나야하고 이제 저 젊은이들을 도화선으로 복음의 불길이 켜질 때오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저들의 인생의 많은 고비들 곧 군대, 취업, 결혼, 화려한 물질문명의 삶을 통과하면서 견고하게 복음만을 위하여 나아 간 것만이,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세속의 무기는 물질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속의 힘이 강해지는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 바르게 서 사가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는 결국 복음으로 무장한 저들이 되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복음,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이 다음 세대까지 이러한 신앙적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말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바르게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편에 서는> 그야말로 세상에 무를 품지 않는 젊은이로(왕상 19:18),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젊은이(사 110:3)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딤후 2:3)로, 십자가의 정병으로의 젊은이를 키우기 위하여 교회와 특히 앞장 선 고대청의 모든 책임자들은 오늘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는 그저 자신을 부린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좇아가겠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전 교인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교회합방②-2004년도 제1차 단기선교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곳으로

2004년도 1차 단기선교팀을 만났다. 장로 안 분, 집사 안 분 그리고 7명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1차 단기선교팀은, 표정도 밝고 행복해 보였다. 문득 그들의 선교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지 궁금해졌다. 우선 장로님은 선교 기간 내내 온 교회가 1차 단기 선교팀인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애써 박차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다. 1차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그들은

작년 인도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인도에 있고, 그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다시 단기 선교를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분명 저는 인도와 선교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조선헌(대학부)'

그곳에서 그들은

'나라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역지를 정하지 않고 인도로 갑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속도를 우선 정하려 할 때, 인도 현지 목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할 곳이라고 '하우랑가바드'를 알려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기도를 드린 후, 기쁨으로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은 외국인을 처음 만난 분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들었던 분도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우리들을 그곳으로 불러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실호(장로)

인도 안 작은 마을에서 전도를 끝내고 떠나려고 하는데, 한 할머니가 내게 오라고 손짓을 하셨다. 다른 팀원들이 기다려서, 전도지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젊은이가 할머니께서 글을 못 읽는다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 앞에 앉아 복음큐브를 보여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다. 할머니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눈빛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들으셨는데, 예수

돌아와서 그들은

'출발할 때 팀장님께서 누가 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중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우리 팀에서도 그저 주님 앞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돌아오면서 든 생각인데 정말 나는 무익한 종이었고, 그저 부끄러운 종이였다.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제목이 생겼는데 '거저 써야 할 양만 한 믿음을 어락해 달라는 것이다.' 김도현(대학부)

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절구로써 담긴 주님이 이 땅의 진파'주'이심을, 축여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쏟아 부으며 확증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 기쁨이 2004년 이 교회에 가득할 기도에 본다.

(정리/권항일, 엄정섭 기자)

'2004 중현 단기선교' 이렇게 진행됩니다(3)

선교언어준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렵도' (행 2:8)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단기선교를 다녀오려면 영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더욱 치밀하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언어의 준비이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언어학적인 부분에서 힘들어 한다. 그러나 선교언어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다. 먼저 선교언어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더욱 열심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1. 선교언어는 깊은 사랑의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하여 직접 인간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과 같이 되셨다. 인간의 눈높이로 맞추신 것이다. 선교언어에 또한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며 주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수준으로 맞추어 가는 첫 단계이다. 따라서 저들이 들을 수 있는 선교언어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2. 선교언어는 민족과 열방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는 접착점이다.

우리가 준비하는 선교 언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다. 우리의 선교 언어 속에는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 들어 있다. 우리가 전하는 선교 언어를 통해 선교지의 영혼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물론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선교언어

교회가 준비한 선교언어는 집중적으로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간단한 인사로부터 시작하여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인사로 끝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① 일반문장(9개)

② 전도문장(31개)

도임→창조→죄→죄의 결과→잘못된 구원의 방법들→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구원의 결과→결단 및 새로운 삶→영성지도(참기 권장)

◆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2월 3일(화)~2월 10일(화)	D	대학부	황영일
2월 3일(화)~2월 12일(목)	D	대학부	노영한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2월 9일(월)~2월 17일(화)	B	교회상근부서	김영달
2월 9일(월)~2월 17일(화)	D	대학부	배준식
2월 9일(월)~2월 17일(화)	D	대학부	박철구
2월 9일(월)~2월 17일(화)	D	대학부	김영은
2월 9일(월)~2월 21일(토)	J	대학부	안동현
2월 10일(화)~2월 19일(목)	D	대학부	황의만
2월 10일(화)~2월 19일(목)	D	대학부	박덕양
2월 10일(화)~2월 19일(목)	G	대학부	윤석민
2월 12일(목)~2월 21일(토)	J	대학부	정정길
2월 12일(목)~2월 21일(토)	D	대학부	차신득

*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행은 밝히지 않습니다.

4. 훈련시간

현재 17개국의 언어가 19개 강의실에서 매 주일 15:20~16:00까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각 국의 선교언어는 태일어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선교위원회 제공)

저인 수요일에 메시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롬 8:9-1)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다. 영원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경고도 말씀하신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사슬이다." (롬 8:6). 육신에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거케 하심이다 -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롬 8:16).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추악함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요 1:11-12, 갈 4:6, 요일 3:24). 여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

크리스천의 삶에 확신과 도움을 주신다 -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삶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엡 4:16).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빌 1:19, 롬 8:26-27). 더 이상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된다. 이런 분명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 우리가 주의 것이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갈 5:22,23). 죄와 허물로 인해 탄식과 눈물을 흘리나 뒤를 돌아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케 되어야 하는데 십자가와 자기부인이 없으면 깨끗케 될 수 없다(요 15:2,4).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뜨려 달라고 간구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 길의 마지막은 영광과 구원이다(롬 6:22).

거룩하게 하신다 -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와 도구요, 주의 성전이 된다(고전 3:16,17).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우리 자신의 인격과 도덕성을 개발하고 연단해서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써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룩케 될 수 없다. 주님이 하셔야 한다. 이것이 참된 거룩이다(히 12:14).

소망을 주신다 - 하나님의 영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신다(롬 15:13).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던 바울을 보라. 얼마나 큰 기쁨과 화해와 소망이 그의 심령에 충만했는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므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요일 3:2-3).

영원을 보증하신다 -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영원을 보증하신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후 1:22).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고후 5:5, 엡 1:13-14). 잠시같은 우리를 위로하시다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며 놀라운 특권인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총의 자녀가 되어 복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며 자랑이며 기쁨이다. 병이 들어도 가난하여도 사업이 망해도 이 행복과 자랑과 기쁨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끊임없는 찬양

유치부 김종민 엄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종민이가 벌써 유치부의 열매만이 되었어요. 항상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조용하던 아이가 영아부, 유아부를 거쳐 유치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간 때마다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아침 일찍 깨워서 교회 갈 준비를 시켜도 별 부정 없이 누나와 함께 가발을 챙기고 집을 나설 때면 어찌보면 보였던 종민이가 무척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유치부 찬양대는 유아부 때와 달리 찬송가를 외워서 찬양하기에 몇 번이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종민이는 잘 알고 있는 찬송곡도 쑥스러워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종민이의 생애에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주일 이은 아침,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줄린 눈을 비비며 교회로 향하는 종민이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2004 전반기 장학생 명단

전역 장학생(3명)

1기(98): 권영일 3기(01): 이복순 4기(02): 오경희

대학원생 (28명)

김민철	김성은	김상배	김형건	김해진	글로자	나 라	바트케일
오경배	박성진	박영민	박옥선	박주희	백은경	송요한	안영희
이철환	윤진준	송지영	이창희	이원보	이진아	이병희	조수진
홍은숙	최운영	추진희	홍인국				

대학생 (124명)

강보은	강진우	강한나	권동희	고종현	고해영	구세훈	켄세디
권지현	기하경	김 결	김국태	김도현	김동주	김민도	김보성
김보미	김상혁	김선영	김진주	김성훈	김소연	김수현	김승희
김아론	김영민	김옥진	김원경	김인중	김지혜	김지희(1)	김지희(2)
김진경	김민지	김현보	김현경	김현우	김희숙	김희진	남윤경
노미소	노지은	도유진	류기성	문원정	민경나	박정은	박병규
박보람	박수정	박정아	박진성	배성준	배한희	송민규	송효기
안경호	안윤정	해설실	오민선	오성익	오홍균	유미경	유미나
유송희	유종민	윤석원	윤은진	이단비	이복희	이민영	이보람
이성훈	이성민	이선화	이성훈	이송미	이은혜	이재선	이재욱
이정은	이정주	이하영	이혜선	이효진	임지혜	장동수	장동현
장우민	장태은	장현민	전성권	전혜영	정국용	정다희	정미선

정유진	정은미	정혜영	정해진	조상미	조성아	조수진	조영종
조종현	조지용	지상혁	지은진	최 웅	최두루	최예슬	최지현
추민정	추희은	한다정	한성은	한영우	한은정	한정우	하다현
허민정	황희화	황은정	황정연				

고등학생 (89명)

강 건	강민희	강은호	강이삭	강재구	강지현	강지은	고혜진
고홍섭	권도형	김기홍	김도훈	김병우	김선아	김성은	김소담
김소은	김시우	김예스디	김예진	김용현	김유림	김유영	김재현
김재훈	김준현	김지혜	김혜린	김영규	김지혜	김종희	김종미
김희철	박 준	박정훈	박상준	박연옥	박은지	박정혁	박정윤
박지영	박현민	백지수	송성배	신정아	신재수	심재수	양요진
오미가	유석호	윤태원	이다정	이동욱	이미영	이민정	이송이
이슬기	이승현	이준형	이지연	이지은	이지훈(1)	이지훈(2)	이진구
이현숙	이현정	이윤희	임진희	임유진	전진호	전선영	전지향
정범용	정성미	정준성	정지혜	조나영	조요래	조은진	조현아
주은혜	지은미	차병철	최시원	한태범	현승기	현지훈	현용욱
황지현							

이상 244명

장학증서 수여식 및 명성문헌 실시(대학생·대학원생)

2004년 2월 13일(금) 금요일 오후 배디나홀

복음의 길을 걸을시다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유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분주히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요 14:4).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고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의 길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주님께 와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 질 때에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마 20:21).

왜 우리는 주님을 좇아가야 하며 그 길로 가야합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위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대가를 바라고 공로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러한 자신을 알기에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노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요 이방인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불과 파를 쏟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도 좁은 길이로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여 줍니다.

그 길은 주님이 몸으로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눈물없는 뜻과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자신을 부인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종현의 성도들은 파울리까지 세상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는 그날까지 복음을 불꽃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류병희 (목사, 4교구 지도)

주인 영혼의 만사를 원하노라
나 주인의 얼굴 뵈을 때
이를 위하여 싸우는 세상 모든 것을 버렸으니
내 땀진 몸과 영혼
내 소망은 오직 주가 다시 신인 것이라
주님 눈물로 만지시고 위로하실 것이라
그가 재판을 핏기시고
가시편에 피 흘린 것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 속에서 오직 한 고백뿐이니
나의 삶은 주의 것이라
이후로 고난은 그릇이 되었고
눈물은 양식이 되었으니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내가 지켰으니

나의 흔적은
세상 속 고통이요 핍박이요 슬픔의 표징이니
그것이 오아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었으니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라
이 흔적을 내가 사랑하노라

강진우(청년1부)

♡ 교구 안에서 만난 예수님 ♡

고상한 지식

형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고 날마다 다짐하며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론 은혜로 일하기보다 다짐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어설피고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때론 세상 것으로 자랑하려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의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을 해로 여긴다는 고백을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골 3:8-9).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생각하며 때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하기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이며 이 복된 삶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길 소원합니다.

장세복 (집사, 10교구)

세 · 가 · 족 · 을 · 형 · 연 · 합 · 니 · 다

다음 주일 찬송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가는 I. D. 생키(Ira David Sankey, 1840-1908)가 작곡하고 엘리자 해밀턴(Eliza H. Hamilton)이 작사한 것이다. 생키는 감리교 감독과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하였고 무디 선생의 협력자로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무디의 부흥집회에서 영혼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녀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냐고 물었다. 그때 목사님은 이사가 53장을 읽어보라고 했다. 가난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했으므로 성경도 읽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 주님 부족한 이대로 날 받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이 일화를 듣고 감명을 받은 생키는 그 소녀의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해밀턴의 시에 곡을 붙여 이 찬송가를 만들었다. 각 절의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절: 부족한 이대로 받으시고 주의 값없는 구원을 하라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절: 볼 것 없이는 나이지만 능력의 주님께서 두하시는 대로 날 만드실 수 있으니 날 이대로 받아 주소서
3절: 나 힘과 결실 약하여 이행치 못하는 쓸모없는 자로되 이대로 받아 구원해 주소서
4절: 주 앞에 굶어 물어드린 나를 보사 주님의 역사 어느 부분이든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소서

후렴: 주님께서 주 위해 죽으셨으니 오직 한 소원, 나 이대로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께 의지하는 신앙으로, 부드럽고 온유하게 2박으로 부르며 더욱 은혜로울 것이다.

(찬양위원회)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0	김화경	3 청년부	김화미(1)	142	최진화	14 청년부	장덕영(14)	154	김해원	19 대학부	김영숙(5)
131	김예희	3 청년부	김화미(1)	143	변홍식	15 청년부	김영숙(6)	155	김해원	19 대학부	김효주(4)
132	박	19 외선부	윤재영(19)	144	김준수	15 청년부	김영숙(6)	156	조대호	19 청년1부	신경혜(8)
133	이기식	7 청년부	이진희(6)	145	김준기	16 청년부	민경혜(16)	157	김효식	19 청년1부	이상환(19)
134	김예미	7 청년부	이진희(6)	146	최형철	16 청년부	김영숙(13)	158	도재영	19 청년1부	황수길(12)
135	최두이	9 청년부	신정재(3)	147	함우철	18 청년부	함미자(10)	159	강우화	19 청년2부	이보진(1)
136	장연순	9 청년부	박성조(7)	148	권오성	18 청년부	함미자(10)	160	최홍운	19 청년2부	
137	차금순	11 청년3부	이종숙(1)	149	하선영	19 고등부		161	정지현	19 청년2부	
138	임자순	12 청년2부	김문자(12)	150	이효원	19 고등부		162	박선경	19 청년2부	
139	바다라	19 외선부	최은영(9)	151	이승호	19 고등부		163	임태진	19 청년2부	이영숙(5)
140	이정숙	13 청년2부	정정길(13)	152	김수지	19 고등부	신경자(17)	164	주 흥	19 외선부	유창근(15)
141	최송준	14 청년1부	장덕영(14)	153	김아름	19 대학부	추민경(8)	165	박기수	19 외선부	이홍조(15)

※ 송광교회와 한 기도가 되어! 찬양하는 분은 본당 200호 제4기초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